

科學教育의 問題點과 그 解決方案

(上)

서울大學校 敎授 兪 景 老

1. 序 論

科學의 振興과 科學教育의 強化가 하나의 重要 國家政策으로 採擇되어서 그 施策에 힘쓴지도 이미 오래다.

科學技術處가 新設되어 그 傘下 諸機關이 새로 誕生하거나 또는 再組織 되었으며 文教部에는 科學教育局이 誕生되고 科學教育에 關聯된 여러 業務가 從으로 橫으로 擴大 強化된지도 이미 10年餘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科學과 科學教育의 強化政策은 날로 그 成果를 올려 왔고 또 現在도 그 成果를 거두고 있는 것은 틀림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科學教育의 實態를 仔細히 살펴 볼 때 過去의 人力과 豫算의 投入이 우리가 바란 만큼의 效果를 거두었는가 하는데는 反應의 餘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 過去의 努力의 代價를 다 거두어 드리자면 앞으로 어떠한 面에 더 重點을 두어서 施策을 強化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도 많이 남아 있다.

오늘은 주로 科學教育에 있어서의 이러한 問題點을 考察하여 보면서 그 解決方案을 提案하여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에서 새 科學教育의 導入過程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에 科學教育의 革新에 關한 世界的 潮流가 밀려 온것은 1960年代 初부

터였다. 世界各國에 比할 때 우리는 比較的 빠른 時期에 그 새 科學教育의 思潮에 接한 便이었다.

1956년에 發足한 PSSC와 그에 뒤이어서 생긴 CHEMS, BSCS, ESCP, IPS, AAS, ESS, SEIS 等等의 敎科課程 研究團體에 의하여 이루어진 새 敎科課程과 敎科書, 實驗書, 敎師指針書等等이 우리나라에 導入되기 始作한 것은 1960年頃으로 그 때부터 바로 一部の 研究가 始作되었던 것이다.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物理科에서의 PS-SC 研究가 아마도 嚆矢였던 것 같고 美國人 敎授 Hudon氏에 힘 입은 바가 컸었다.

한편 Peabody Project, AID Project 등을 통한 敎育援助計劃에 依하여 國內人士가 美國으로 科學教育을 배우러 갔으며 短期의 夏季學校에 參加하여 새 科學教育의 傳達講習을 받고 돌아 오기도 했다.

이 무렵에 Fulbright 敎育委員會가 選定해서 보내온 科學敎育學問敎授들이 來國하여 새로운 物理, 化學, 生物, 地理科學, 數學 등의 敎育을 傳擔하게 되었으니 Sanderman Hasse, Sturtis, Fawler 등의 諸敎授가 우리나라 科學敎育의 方向 轉換에 미친 功勞는 實로 큰 바가 있었다.

이들 美國人 敎授들이 머물러 있던 時期에 各 師範大學에서는 한편으로는 새 科學敎育을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中高等學校 敎師에게 講習을 통해서 傳達하곤 하였다.

이 時期에는 또 科學敎育者의 團體가 처음으로 組織되기도 하였다. 韓國自然科學敎育研究會가 그 중에서도 가장 活潑하였다. 그 分科委員

會로서 數學, 物理, 化學, 生物, 地理科學의 5 個分野가 또한 各其 活潑히 움직이어서 그들에 의하여 美國의 새 科學教科書인, PSSC, CHEMS, BSCS 綠色版 IPS가 翻譯 出版되었으니 또 數學의 SMSG의 一部도 翻譯出版되었고 地理科學의 ESCP는 出版은 못되었지만 翻譯만 된 채로 利用되고 하였다.

中高等學校 및 初等學校의 科學教師의 講習은 國立師範大學으로부터 다시 各 市道의 教育委員會까지 擴大되어서 每年 年中行事와 같이 施行되어왔다.

이들 講習에서는 새 科學教育의 哲學과 方法으로부터 各課程의 內容과 實驗等等에 이르기까지 徹底히 다루어져서 從前의 教師 講習의 面目을 一新하여 多大한 成果를 올렸다.

이 새 課程의 研究와 傳達 過程에서 必要했던 實驗器具와 圖表 Film等등의 여러 教育材料는 或은 美國의 援助로 或은 借款으로 導入되었고 或은 各學校에서 直接 購買도 하였으나 얼마 後에는 國內의 科學器具商社가 이를 模倣 製造하여 供給하여 教師講習에 큰 支障이 없게까지 되었다.

이 새 科學教育의 導入으로 因하여 文敎部 編修局에서는 國民學校와 中學校의 科學教科書를 새 思潮에 따라서 大膽하게 改編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는 새 科學教育의 導入은 거의 한 段階가 지나고 우리의 教育에의 適用의 問題가 擡頭되었었다.

文敎部 編修局이 改編한 새 科學教科書는 初中學校를 不問하고 一貫해서 所謂 探究의 科學과 統合의 科學을 指向하였다. 內容도 日常의 應用科學이 排除되고 科學의 基本概念과 科學의 探究方法이 強調되었다.

새 科學教育課程은 全的으로 새로운 科學教育의 哲學과 方法에 따라 一線의 教育에 革新을 期待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文敎部는 이 새 教育課程制定을 위하여 많은 研究學校를 指定하여 探究의 學習課程으로서의 여러 美國科學課程의 現場研究를 시켰던 것이다.

한편 大韓敎員共濟會에서는 UNICEF의 援助를 얻어서 科學敎具公社를 만들어 九老洞 輸出

團地에 工場을 設置하고 一線 教室에서 使用할 여러 科學機具를 製作 또는 委託販賣하여 一線 教育의 需要에 應할 體制를 갖추어가고 있다.

以上과 같이 革新的인 科學教育課程은 그 基礎 및 適用研究와 教師에의 傳達講習과 教育資料의 開發等으로 이제는 全般的으로 實踐段階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더우기 最近에는 初中學校 教科書 內容을 主로하는 實際教育에 主眼點을 둔 教師講習이 全國적으로 實施되고 있기 때문에 國民學校와 中學校에서의 科學教育은 直時로 革新될 수 있는 時點에 到達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은 그렇게 樂觀만은 할 수 없는 問題點들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3. 科學教育革新의 效果를 거두기 爲하여 아직도 남아 있는 問題들

一線의 教育을 視察해 볼 때 또는 一線教師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 볼 때 文敎部나 教育委員會의 職員이 勸告하는 바를 들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科學教育이 革新的인 方向으로 轉換될려면 아직도 많은 問題點이 解決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問題들을 教育行政面과 教育實踐의 面으로 兩分해서 整理하여 보기로 하자.

A. 于先 教育行政의 面에서 볼 때에

- 1) 中等學校教師의 擔當授業時間의 過多
- 2) 擔當 授業 外의 公文處理 其他의 雜務 過多
- 3) 學級當 學生數의 過多
- 4) 科學實驗室의 不足 또는 殆無
- 5) 實驗費의 過多
- 6) 科學實驗室 運營에 必要한 助手의 殆無
- 7) 學校 行政責任者의 理解不足
- 8) 實驗機具 購入에서의 複雜性과 不便宜
- 9) 入學試驗 準備가 주는 制約
- 10) 各 市道 및 全國 科學展이 주는 心理的, 時間的, 金錢的, 壓迫

등의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이들은 主로 一線教師와 獎學士의 거의 一致된 不平이다.

B. 以上の 主로 行政的인 面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 教師自身에 關한 問題點으로는

- 1) 教師의 教材內容에 對한 實力 不足
- 2) 實驗에 對한 技能 不足
- 3) 새 科學教育의 哲學에 對한 理解不足 또는 信念 缺乏
- 4) 科學教育에 對한 誠意不足等을 들 수 있겠으나 이들은 講習時의 講師, 獎學士, 校長 등이 말하는 意見이다.

이 밖에도

C. 教育全般에 對한 問題點으로서

- 1) 各級學校의 教科課程이 過度히 雜多하여 授業時間에 過多하다는 것.
- 2) 過度히 行政的인 學校運營의 風潮가 學校長 및 學級教師의 教育的 信念을 弱화하고 있다는 點.
- 3) 所謂 客觀的 考査의 風潮가 教育의 깊이를 考慮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 教育을 齊來하였다는 것.
- 4) 入學試驗制度 또는 學校 平準化 政策이 여러가지로 問題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等等이 報告되고 있다.

이렇게 問題를 羅列하여 놓고 보면 우리는 科學教育의 革新과 強化를 爲하여 施行한 일보다도 앞으로 解決할 問題가 더 많이 남은 듯한 印象마저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 남은 問題들은 大部分이 教育全般에 걸친 問題로서 科學教育 뿐만이 아니고 다른 教科까지도 슴쳐져 問題가 되는 것들이므로 決코 우리의 過去の 科學教育 強化에 對한 努力이 이것 때문에 過少評價될 수는 없는 것이다.

4. 科學教育 強化를 위한 國家的 規模의 行政的 問題와 그 解決方案에 對한 提案

(1) 첫째로 우리는 教育效果가 授業時間에 比例할 것이라는 漠然한 生覺을 버리고 各級學校의 授業時間을 또는 授業教科目을 大擔하게 줄여야 한다. 現在와 같이 早朝부터 저녁까지 學生들이 學校에서 時間을 보낼 수 있는 것은 思考에 에너지를 消費하지 않고 暗記式教育에 끌

려서 筆記爲主의 學校生活를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本人은 생각한다. 能率도 오르지 못하는 授業을 限없이 되풀이 하지 말고 學生들이 自己自身을 찾을 수 있는 機會를 준다는 意味에서도 授業時間은 줄어야 하고 學生의 身體的 發育과 成長을 위해서도 授業時間은 短縮되어야 한다.

教科內容은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重複되고 있는지 모른다. 勿論, 重要概念의 學習은 그 深度를 달리하여 重複되어야 한다. 그러나 現在와 같은 暗記教育의 反復은 오히려 教育的 浪費일 것이다. 文敎部는 教科課程의 改編에 앞서서 全體的인 授業時間의 減縮을 斷行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各科의 專攻者들은 各級の 科目의 重要性을 強調하기 以前에 우리의 學生들이 얼마나 授業時間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直視해야 한다. 登退校하는 學生들의 짐의 量을 보고 우리의 教育的 實態를 反省하여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教育者는 모두 文敎部의 授業量의 減縮에 反對하지 말고 이를 促進시키도록 해야 한다.

(2) 두번째로 學生人員의 減縮이다.

解放以後 三十年 우리 教育의 量的 膨脹은 實로 놀랄만 했다. 그만치 國民과 當局은 教育을 重視했고 教育에 投資해 왔다. 그러나 學級當 70名을 넘는 過密度 教室의 問題는 解決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教師의 養成能力도 伸長되어서 一部에서는 過剩生産의 現象까지 나타나고 教育大學의 大幅的인 減縮이 要求되게 까지 이르렀다. 教師는 數의으로는 크게 걱정할 段階는 지나간 것으로 안다.

이제는 教育投資가 제대로의 收穫을 걸어 드리기 위해서는 教育의 質的 向上에 重點을 두어야 하겠고 그러자면 于先 學級當 學生數를 줄이는 施策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現在 教育에 쓰고 있는 돈은 莫大하다. 國家豫算에서도 文敎豫算이 큰것도 事實이지만 우리의 個人的인 家計簿에서도 子女의 教育費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이다. 이것을 全國의으로 累加할 때 우리 國民이 教育에 쓰고 있는 돈의 量은 莫大할 것임이 틀림없다. 教育의 質的 不忠實처럼 國庫의 또는 國民의 財力의

浪費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財政의 面에서 教育의 成果라는 問題를 提起하고 研究하여야 하며 于先 學級學校의 教室의 學生密度를 줄이는 方向으로 施策의 大轉換을 模索해야 하겠다.

(3) 첫째로는 教師 再教育의 制度化的 問題다 近者에 와서 教師 再教育은 매우 強化되었고 再教育의 結果가 教師의 昇進과 資格과도 連關되어서 相當한 規制를 주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教師의 講習은 아직도 師範大學이나 教育大學의 義務外의 行事로 남아 있고 더구나 最近의 職制가 주는 制約으로 講習에 臨하는 講習에 意慾을 떨게 하고 있는 現實이다. 다만, 몇몇 教育研究院이나 學生科學館에서 實施하는 講師만이 小規模이지만 教師 再教育의 制度化的 方向으로 견고 있을 뿐이다.

文教當局은 現職教師의 教育이 매우 重要하다는 것을 認識은하였다.

그러나 教師의 養成教育 即, 教育大學과 師範大學의 正規的인 學校教育에 比할 때 現職教師의 教育方法은 아직도 구각을 벗어나지는 못한 狀態에 있다. 教育에는 學校도 있어야 하고 教育材料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重要的 것은 좋은 先生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좋은 先生이란 養成機關에서 教師資格證을 얻고 나온 教師라는 것만으로는 充分하지 못하다. 不斷히 進展하고 發達하는 文化와 教育을 끊임없이 導入吸收해서 一線教育의 改善에 힘쓰지 않으면 教育도 亦是 停滯된 물과 같이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本人이 여기서 提案하는 바는 現職教師의 再教育을 養成教育과 같이 制度化하여 教師養成機關의 兩大機能의 하나로 만들라는 것이다. 現在의 教育研究所나 研修院이나 科學館의 再教育의 機能과 教育大學이나 師範大學에서 實施되는 夏季 또는 冬季 再教育 講習을 一元化하고 制度化해서 教育大學이나 師範大學으로 移管하고 이들 大學은 教師의 養成과 再教育을 兩大機能이며 兩大任務로 갖게 하라는 것이다.

現在와 같은 小規模의 또는 해마다 바뀌는 豫算에 따라 半即興的인 教育方案에 依하여 再教

育을 하지 말고 長期的인 教育計劃에 따라서 充分한 施設과 豫算을 가지고 精選된 過程을 가지고 實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면 現在의 教育大學이나 師範大學의 面貌를 一新하는 國家教育機關의 一大改革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文教政策에 對하여 提案되어야 할 것이 많을 줄 안다. 그러나 本人은 위의 3個條項이 唯獨 科學教育 뿐만이 아니고 教育全般의 一大改革과 劃期的인 前進을 위해서는 하루 바빠 達成되어야 할 가장 큰 問題點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큰 施策의 變化가 科學教育에의 그 동안의 投資와 努力을 거두어 들이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効果的인 것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5. 科學教育 強化를 위한 教育風土 上的 問題點과 그에 對한 提案

解放以後 우리는 所謂 民主主義教育을 指向해 왔고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家들의 教育哲學과 教育方法을 大量으로 導入하고 또 그의 適應을 試圖 實踐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의 教育이 世界의 教育思潮가 흘러가는 方向을 따라서 움직이어가게 된 것이 事實이며 現在도 그런 方向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발자취에 따라서 우리의 教育도 隔世의 感이 있을 만치 變換한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낡은 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고 또 그 일부는 또 새 思潮의 이름 아래에 成長마저 한 것이 있다. 한편 새 教育思潮에 對한 誤解에서 意外의 方向으로 빗나가버린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다.

教育學者가 아닌 本人으로서 이러한 問題들을 體系있게 整理하여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科學教育에 從事하는 者로서는 또 教育學者와는 自然 다른 것을 느끼는 點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散漫하나마 本人이 漠然히 느끼는 몇가지 問題에 局限해서 提言코자 한다.

(1) 客觀式 單答型 評價法에 對한 反省

解放後 ○×式 또는 四選枝 選多型 等の 所謂 客觀的 評價法이 導入되어 한때는 모든 評價는 그러한 客觀的 單答型의 問題로만 비로소 正當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時代가 있었다. 最近에도 大學入學試驗 같은 데에서 主觀式 問題의 出題가 加味되고 있기는 하나 亦是 完全한 主觀式이라기보다는 折衷式이라는 印象이 깊다.

이 客觀式 單答型의 問題가 우리의 教育에 果然 무엇을 가져 왔던가? 確實히 過去의 非能率의이며 正確性이 保障되지 못했던 主觀式 問題의 缺陷을 是正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냈던 客觀式 問題가 果然 그 創案者가 意圖한 바와 같이 完全하였던가?

우리는 過去에 서울市에 있었던 所謂 무집 事件을 記憶한다. 무집 事件 때의 問題를 본 사람은 무집의 問題 밖에도 單答이 될 수도 없고 正答이라고 할 수도 없는 問題들이 許多하였음을 알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問題에서도 出題者가 正答이라고 생각한 答을 맞춘 者와 못맞춘 者가 그 學科에서 果然 優劣의 判가름이 날 수 있었던가 물을 때 우리는 그렇다고 할 수 없는 立場에 서게 되는 그러한 問題들이 많았다.

客觀式 單答型의 問題는 그 뿐만이 아니다 眞理는 하나이고 그 眞理의 理解는 正確한 言語의 暗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信條를 남겨 되었던 것이다. 解放後 特히 6.25後에 漸次로 高潮된 暗記式 授業은 그 原因의 相當한 部分이 이 客觀式 單答型 出題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客觀式 評價는 知識의 깊이를 要求하지 않고 재치있는 表語의인 知識의 記憶을 崇尚하게 되지 않았는가 國語에서는 作文이 輕視되고 語意의 깊은 뜻보다는 同意語나 反對語의 記憶이 試驗準備에 더 効果의이었으니 하물며 科學에 있어서야 科學教育에 있어서 探究的 過程은 試驗에 있어서 非能率의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도 그러한 理由와 口實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제 客觀式 單答型의 問題에 對하여 反省하고 是正해야 할 뿐 아니라 거기서 派生되어 나아간 그릇된 教育觀에 對하여서도 批判과 反省이 있어야 하겠다.

(2) 校長은 行政家에서 教育者로 돌아가야 한다는 問題

近來에 와서 行政이 強化됨에 따라 學校長이 教育者라기 보다는 行政家의인 任務와 性格이 커져가고 있음은 否認 못할 事實이다. 行政當局이 學校長에게 教育者라기 보다는 有能한 行政의 能力을 더 期待하는 傾向이 크다. 即, 上部에서 示達하는 指示를 行政的으로 잘 處理하여 주기를 바란다. 美國에서도 學校長은 管理職으로서의 必要한 訓練을 받은 사람이라야 資格이 賦與되고 餘他的 學級教師와는 다른 性格을 띄고 있음을 보았다. 本人의 느낌으로는 그들에게는 英國의 Public school의 校長과 같은 강한 教育者의 風格을 期待할 수는 없는 그러한 學校長이었다. 이러한 美國의 教育行政의인 影響인지 또는 우리 國民의 大多數가 權力型 또는 그 追從型의 人間을 높이 評價하는 傾向이 潛在해서였던지 모르나 間或 校長들 間에는 學校長이 公式的으로 教育者로 呼稱되기보다는 教育管理者로 呼稱되기를 願한다는 事實을 알고 있다.

教育이 行政指向的인 學校長에 依해서 보다 効率的으로 成就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이 問題를 좀 깊이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學校長은 勿論 學校行政의 責任者이다. 그러나 學校長은 學校行政을 올바르게 이끌고 나아가려면 올바른 教育哲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教育愛를 實踐하는 훌륭한 教育者이어야 함은 過去의 歷史가 말하는 바이다. 本人은 近者에 와서 이러한 教育學의 image가 사라져 가고 事務的인 雰圍氣가 學校를 식혀가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教育行政에만 關心이 큰 學校長은 學級에서 實際教育의 方向에 對한 感覺이 어두워진다. 國語教育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數學教育이 어떤 傾向으로 가고 있는가에 關心이 적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狀態에서 學校의 教科教育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가.

教育行政研修院에 있어서 每年 數十名 또는 數百名의 教育行政家의 再教育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教育行政研修院에서 얼마큼이나 教科教育의 새 思潮와 새 方法에 對한 教育과 訓練이

는지 모른다. 매우 적고 거의 효과가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學校長은 어디까지나 教育者라는데 矜持를 가져야 하며 學生의 人格教育의 核心이 되어야 하며 教科教育에서도 恆時 時代에 맞는 識見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科學教育이 強調된지 오랜 時間이 經過되었음에도 物象과 生物이란 區分이 오늘날 어떠한 意味를 가지는가.

統合科學의 精神이란 무엇인가? 地球科學이 地理와 어떻게 다른가 探究學習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正確히 把握하고 있는 校長이 果然 몇%나 되겠는가 科學教育에서의 探究學習을 人文士會等 教科教育에도 適用할 수 있는 否라고 생각하는 校長, 校監은 또 몇%나 되는가.

本人은 教育行政을 擔當하는 사람이 教育者本然의 姿勢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即 校長은 學生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며 어떻게 성장하여 가는가에 對한 問題에 한層 더 密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校長과 學生 사이에는 보다 具體的인 問題로 直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校長이나 校監의 再教育에서도 一般的인 行政論이나 教育理論과 아울러서 보다 具體的인 各科 教育의 思潮에 對한 教育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科學教育 強化를 看板으로만 내세우고 그것의 方向도 가는 方法도 모른다면 校長은 어떻게 科學教育強化에서 leadership을 發揮할 수 있겠는가?

(3) 入學試驗 準備에 對한 反省

教育의 目的의 하나는 學生이 未來에 自身の 力を 開拓해 나갈 수 있는 能力을 준다는 것일 것이다. 未來를 開拓하는 첫 段階는 于先 上級學校에 入學하고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論理때문에 一部の 學校에서는 全力을 다하여 入學試驗準備에 沒頭하고 있다. 그래서 學生들

을 早朝學習부터 放課後 學習까지 하루에 12時間 以上을 學校에 붙잡아 둔다고 한다. 教育委員會에서도 이들 學校를 熱意에 찬 尊敬할 만한 學校로 생각하는 傾向마저 있다고 들린다. 이러한 入學試驗 準備 一邊倒의 學校에서는 依例 暗記式, 注入式의 訓練이 強行되고 있는 것이 實情이다.

이러한 過熱된 入學試驗 準備 競爭이 우리의 教育을 果然 어떠한 結果로 몰고 갈 것인가. 우리는 깊이 反省하여 不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人生에 競爭이 있다면 이 競爭에서는 勝者가 되어야 하고 勝者가 될려면 그만큼 準備에 努力을 쏟아야 함은 當然한 일이다. 그렇다고 現在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入學試驗準備 一邊倒의 教育을 當然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안다.

入學試驗準備式 教育이 絕對로 正常的인 教育 아니기 때문이다. 非正常的인 教育이 이 우리가 期待하는 教育의 成果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크게 본다면 國家 教育豫算의 消費가 되는 것이고 歷史的으로 볼 때는 國家將來에 對하여 病菌을 蓄積培養해 가는 것이되는 것이다.

우리는 決코 自己의 弟子를 入學시켜 놓고 본다는 目前의 榮光에 현혹되어서 國家 教育의 將來를 망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國家 教育을 더 큰 눈으로 더 먼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學發教育을 絕對的으로 教科過程을 忠實히 지켜 나가며 各科의 本然의 授業方式을 따르는 正常的인 것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教育者에게는 매우 큰 勇氣가 必要하며 또 全教育者의 一致된 團結이 必要함은 勿論이며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줄은 안다. 그러나 우리 教育者는 國家教育의 將來와 國民의 幸福을 위하여 이것을 實現하여야 한다.

本人은 여기서 우리의 全教育者에게 入學試驗準備教育의 止揚을 呼訴하는 바이다.

—다음호에 계속—